

보도시점

2026. 9. 9.(수) 13:00

배포

2026. 9. 9.(수) 06:00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 개최

- 농식품 기업, 투자사, 대기업, 해외기업, 유관 공공기관 등 300여 명 참여
- 1:1 투자 수출 상담, 농식품 기업 제품 전시·시연,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 및 판로 확대, 해외 진출 기회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9월 9일(수) 서울에서 농식품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기업·해외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이하 ‘금융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의 가능성, 세계시장과 투자로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농식품 투자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전략을 공유하고, 농식품 기업이 투자자 등과 심층 상담 및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얻고, 사업 확장 및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금융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기업 50개 사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유관 공공기관과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엑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등 투자사, 식품 대기업*, 글로벌 유통 바이어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 멘토링, ▲글로벌 플랫폼(Amazon, Alibaba) 등을 활용한 해외 판매 상담, ▲KOTRA 등 무역 관련 공공기관과 수출 상담, ▲VC·AC와 투자 상담 등 4개 전문 분야별로 입체적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 (식품 대기업)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리온, 풀무원, 롯데칠성

또한, 21개 농식품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제품 전시·시연회가 진행되었으며,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 유통사, 관계기관이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교류의 장을 가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농식품 투자 생태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융투자 로드쇼가 농식품 기업들은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는 새로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농식품 금융투자 로드쇼 포스터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정진	(044-201-1752)



